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2009년도 오리 산업을 되돌아보며

HPAI발생, 사료값 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며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성장세는 AI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부터 늘어난 새끼오리 생산량이 자칫 과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내년도 오리 산업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안정된 소비기반 구축

전통적으로 오리고기 소비는 가든 형 식당 위주의 건강식으로 특별한 음식으로서 대접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웰빙바람이 불면서 다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리고기가 웰빙식품

으로 각광을 받으며 인기를 끌어왔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대형 오리전문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하면서 오리고기 소비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HPAI가 발생되면서 이러한 오리고기 소비를 급감시키면서 대형오리전문점들이나 프랜차이즈 점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급격한 소비기반 붕괴로 이어져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어야만 했다.

올해 오리고기 소비는 이러한 대형 오리전문점들이나 프랜차이즈 점들을 대신해 일반음식점에서 오리 메뉴가 일반화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겹살 전문점에 오리고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삼겹살 등 다른 메뉴를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거 특별할 때만 특별한 곳을 가야만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홍제오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고기

소비자들은 이제 시내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일반 식당에서도 오리고기를 쉽게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은 훈제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훈제오리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리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과거 일부 대형마트에서 냉동 오리고기를 소량으로 취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판매기반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오리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과거 일부 대형마트에서 냉동 오리고기를 소량으로 취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판매기반이 크게 늘었다.

요즘 시중의 대형유통매장을 가면 오리판매대가 한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리전문점에서만 오리고기를 소비했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오리고기를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몇 년 전 한 오리업체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며 개척한 TV홈쇼핑 시장이 이제 웬만한 오리업체들의 판매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소비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사육수수 증가

지나해 4월 발생한 HPAI로 인해 오리업계는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과거 2차례 발생했던 HPAI와 달리 2008년도에 발생한 HPAI는 특히 오리 농장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간 오리 소비량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600만수가 넘는 사상 최대 물량이 수매 비축됐고 사육기반도 크게 위축됐다.

올해 초 오리업계는 지난해 수매 비축됐던 오리고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으며 최악의 불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국외로 반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실제로 이를 추진했지만 여건상 국외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우

[연도별 새끼오리 생산량]

▶단위: 천마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3,031	3,071	3,536	3,857	4,298	4,309	3,926	3,244	2,907	3,208	3,606	2,972	41,965
2008	4,289	4,323	4,485	3,550	3,584	3,057	2,798	2,265	2,381	2,516	2,231	2,470	37,949
2009	2,459	2,679	3,568	4,046	4,518	4,746	4,327	3,478	3,925	4,156			37,902

※자료: 한국오리협회 ※회원사 28개업체 조사치

[연도별 오리 도압수수]

▶단위: 암·수/마리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7	2,701,398	2,334,499	3,138,145	2,767,358	3,607,937	4,012,077	4,412,631	4,184,747	3,648,438	3,950,884	3,010,819	3,729,225	42,187,170
2008	3,830,339	3,322,551	4,428,983	4,632,905	5,296,283	5,062,167	4,355,320	3,718,542	3,372,237	3,661,107	3,080,449	3,653,739	48,414,622
2009	2,464,947	2,535,122	3,360,489	4,004,864	4,830,543	5,574,877	5,935,728	5,521,525	5,411,562	4,764,407			44,404,064

※자료: 한국오리협회

려와는 달리 연초부터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지난해 수매 비축됐던 오리고기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의 증가를 비롯해 대형마트에서의 오리판매 등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10월 말 현재 누적 오리도압수수를 살펴보면 4천440만4천64수로 전년 동기간 4천168만434수 대비 6%가량이 늘어났으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오리도압수수가 5천만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특히 2007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1천만 수 이상 늘어난 것이고 2006년 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오리고기 최대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도압수수는 5백만수 이상씩을 기록하기도 했다.

### ⊗안정적인 소비기반은 구축됐지만 늘어난 생산 기반은 불안요소

올해 오리 산업은 소비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내년도 경기 전망을 다소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접어드는 하반기에는 새끼오리 생산량이 오히려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매년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6월에 새끼오리 생산이 정점을 다다른 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이 같은 현상에서 벗어나 6월 이후에도 새끼



오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10월 말 현재 새끼 오리 생산량은 415만6천수로 전년 동월 251만6천수에 비해 무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월 말까지 누적 생산량 역시 3천79만2천수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 ⊗종오리 등록제 및 데이터베이스 사업 시동

이러한 가운데 금년도 오리업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종오리 등록제 시행과 함께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향후 오리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종오리 등록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F1을 통한 새끼오리 생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생산예측과 함께 건전한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오리데이터베이스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도 정확한 생산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 ⊗오리대표조직 육성과 오리산업발전연구회 출범

이밖에도 오리 산업은 소, 돼지, 닭에 이어 주요 축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의 정책에서도 과거와 달리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에서부터 과거 양계계가 아니라 가금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또 전체 농산물 중 29개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리 산업이 29개 품목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조직된 연구회는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의 창구로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했으며 오리업계도 오리산업발전연구회를 통해 오리업계가 당면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